

海外文學派의 外國文學 受容樣相*

韓國近代文學과 日本文學의 相關關係 調査考察

金 容 稷**

1. 머 리 말

이 작업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삼고 시작된다. 그 하나는 우리 근대문학과 일본문학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되리라는 사실의 시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 근대문학이란 그 기점을 19세기말에 이루어진 개항후로 잡는 경우다.¹⁾ 그리고 이때 문제되는 우리 근대문학의 형성과 전개는 그 계기가 서구적 충격을 통해 지어졌다.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서구적 충격이란 그 내용이 영·미·독·불·러시아 등 구라파를 一次的 源泉으로 한 것들이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이미 그 이전에 서구의 근대문화를 수용해서 그 亞流의 자리를 차지한 日本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근대문학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 일본문학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일은 必要惡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 근대문학의 성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단 거칠 필요가 있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이 작업의 또다른 전제는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海外文學派가 차지하는 의의를 시인하는 데 있다. 海外文學派는 1920년대 후반기경에 우리 문단 일각을 차지하고 나타난 문학 유파였다. 이들은 처음 외국문

* 이 글은 1983년도 문교부파견해외연구교수의 보고서로 쓰여진 것이다. 삼가 관계기관에 사의를 표한다.

** 國語國文學科 教授

1) 한국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해서는 英正時代遞及論과 開港後로 보는 견해 등 두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자세한 것은 줄고, 近代詩의 起點, 「韓國近代詩史」(새문사, 1983), pp. 39-44 참조.

학의 번역·소개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후 그들 나름의 독특한 행동원리와 활동실적에 의해 우리 문학과 문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 볼 수 없는 것이 海外文學派가 외국문학을 번역·소개한 그 태도 내지 입장이다. 정작 海外文學派의 구성원들은 그 전원이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다.²⁾ 그럼에도 그들의 해외문학 번역·소개에서 일본문학은 심하게 경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최대의 역점을 둔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문학 등의 수입과 수용에 있어서도 일본의 영향이 애써 배제된 자취가 포착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제기되는 물음에 해답을 마련하는 일은 한국 근대문학의 효과적 이해를 위해서 얼마간의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따라서 이 작업은 또하나의 전제로 海外文學派를 문제삼으면서 시작되어진다.

2. 基本資料整理

海外文學派란 유과의 명칭을 성립 가능케 한 것은 외국문학연구회였다. 그리고 이 연구회가 발족을 본 장소가 일본 동경이었다. 외국문학연구회가 발족을 본 시기는 1925년경으로 추정된다.³⁾ 발족 당시 이 문학연구회의 구성원들은 그 대부분이 대학 예과에 재학중인 신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외국문학을 전공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은 당시 젊은이로서의 패기를 지니고 있어서 그들 이전의 한국문단에서 이루어진 해외문학의 번역·소개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次元을 지양·극복해야겠다는 의욕과 함께 외국문학연구회를 발족시켰다.

2) 참고로 海外文學派의 출신교와 학과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異河潤(法政大 英文科), 金晉燮(法政大 獨文科), 洪在範(法政大 哲學科),
孫宇聲(法政大 佛文科), 李瑄根(早大 史學科, 단 예과에서는 노서아어전공),
金明輝(東京高師 英文科), 鄭寅燮(早大 英文科), 金禮(東京外大).

외국문학연구회의 구성원들은 처음 친목을 겸한 세미나를 연 것 같다. 그리고는 몇차례 모임을 거듭한 다음 어느 정도의 역량이 축적되자 그 역량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갖고자 시도했다. 그 구체적 보기가 되는 것이 海外文學傑作選集의 발간 시도였다. 이 시도는 故 異河潤 교수의 회상에 의하면 1926년도에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외국문학연구회의 이와같은 최초의 발표시도는 출판사와의 교섭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서 水泡로 돌아갔다.⁴⁾ 그리하여 이 문학회가 우리 문단이라는 수평선 위에 부상하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 되었다.

외국문학연구회는 그 후 그들의 회지를 발간키로 했다. 그것이 후에 「海外文學」이란 제목을 달고 발간된 잡지이다. 구체적으로 「海外文學」의 첫호 발간은 1927년에 이루어졌다. 그 발행인은 李殷松으로 되어 있고, 발행지는 서울이었다. 또한 그 부피는 200면 안팎이었는데 집필자들은 모두가 외국문학연구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외국문학연구회가 기획·발간한 이 잡지는 그 이전에 나온 우리 주변의 잡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특색을 지닌 것이었다. 그 하나는 전 내용이 외국문학의 번역·소개로 충당된 점이었다. 그리고 그 다른 하나가 통속주의를 배제하고 상아탑의 고고성을 살리고져 한 문학태도 같은 것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海外文學派 이전에도 한국문단에서 외국문학의 번역·소개는 빈번히 이루어졌다.⁵⁾ 이 경우 우리는 그 단적인 보기로 金儼이나 「金星」 동인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金儼이나 「金星」 동인들은 어느 편인가 하면 외국문학의 번역·소개로 그 문단활동을 시작한 쪽이 아니다. 그들은 창작시의 발표를 선행시켰거나 우선적으로 시도했다.⁶⁾ 따라서 해외문학의 번역·소개는 그들에게 부차적 의미를

3) 異河潤, 나와 海外文學時代, 「大韓日報」(1969. 8. 7).

4) 異河潤, 나와 海外文學時代, 「異河潤選集」(한샘사, 1983), p. 182.

5) 우리 근대시에 끼친 金儼과 「金星」同人들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전계 「韓國近代詩史」 제 3장 本格 近代詩의 登場과 展開, 제 5장 詩專門集團, 金星派의 등장, 제 6장 民謠調의 形成과 展開 등에 자세히 밝혀 놓았다.

지냈을 뿐이었다. 海外文學派는 이와같은 우리 주변의 외국문학 번역·소개 부업시 경향에 중지부름 적은 셈이다.

다음 해외문학파는 그들 나름의 판단에 의해 어느 정도의 격조가 있는 작품만을 골라서 번역·소개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제 우리는 그와같은 사실을 외국문학연구회의 행동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海外文學」 창간호의 목차 내용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평론〉

金晉燮—表現主義文學論.

鄭寅燮—프롤로그論하야 外國文學研究의 必要에 及하고 「海外文學」 創刊을 祝함.

金石香—最近 英詩壇의 趨勢.

李瑄根—露西亞文學의 創始者 푸쉬킨의 生涯와 그의 藝術.

〈소설 번역〉

鄭寅燮譯—赤死의 假面(에드가 알란포우).

孫宇聲譯—神父의 木犀草, 제스타스(아나톨 프랑스).

金晉燮譯—門前의 一步(하인릿히만).

李殷松譯—고기의 설음(와시리 에루센코).

異河潤譯—빌지니와 프올(빌리에드 릴라당).

〈시 번역〉

異河潤譯—가을의 노래, 내가삼 속에는 눈물이 퍼붓네, 가이 없는 검은 잠은 흰 달, 안개 어리운 냇가에 나무 그림자는(P. 베르렌느).

李瑄根譯—惡魔, 毒나무, 구름장, 아침해, 暴風(푸쉬킨).

金石香譯—나이트िंग게일(P. 브리짓스), 眞理(존에이스필드), 대담없는 사람(윌터 드라마이어).

孫宇聲譯—追憶(알프리트 뢰세), 哀戀歌(1)(2)(알벨 사명), 疑念, 樹念, 瞑想(P. 제랄디), 사랑의 詩(노아이유 남작부인).

金晉燮譯—모든 것은 유희였다(K. 메이어), 미니옹(괴테), 不知史(코핏슈), 外的生活의 발라드(H. 노프만스탈), 어떤 젊은 벗에게, 廢園(하인릿히 아들트), 孤獨, 困苦, 池邊(아더 크리스텐), 짜라투스트라노 노래(F. 니이체), 길에서(야코브 유리우스 다빗트).

異河潤譯—셋째 노래, 다섯째 노래, 여덟째 노래(모리스 마아텔링크).

〈회곡 번역〉

金龜譯—求婚(안톤 체홉), 月光(마리네티).

이밖에도 「海外文學」 창간호에는 胡適의 白話詩 〈十一月二十四日夜〉와 레이몬 뱀투우크의 Love and Death, The Sorrow of One, Cursed with Immortality on Earth 등의 작품이 원문대로 실려 있다.⁶⁾ 여기서 참고로 밝히면 레이몬 뱀투우크는 당시 早稻田大學에서 영문학교수로 재직중인 외국인 교수였다. 그와 胡適의 작품을 원어작품 그대로 실음

6) 참고로 원시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老槐樹的影子 / 在月光的地上微晃
 桑樹上還有幾乾葉 / 時時做出一種沒氣力的聲響
 西山的秋色幾回招我
 不幸我被我的病拖住了
 現在他們說我快要好了
 那幽艷的秋天早已過去了

—胡適, 〈十一月二十四夜〉

The mother drows asid the veil lets her child into the world, and perishes.
 The husband fights for his wife and child, guards their memory in his heart, loves and,—die
 The miser, who has no children, hoards his gold starves his body; and dies for his love.
 And it is for love that Death wanders over the hills to meet each lonely traveller.

—Love and Death

I joined pleasure-seekers who seemed ever longing for new experience,
 and asked them why revelled thus.
 They said it was best to see and hear all they could,—while there was time.

(Time alas! what is that to me?)

I mingled with workers painting pictures and writing great books.

“Why do you work so fast?” I cried. They answered:

“Because Night cometh wherein no man may work”

(Ah! Blessed Niht, whose dewes will never wash my brow and cool this tortured soul!)

I passed a host of men raising great monuments, destroying old ones and building new.

“Why do you thus?” I asked.

“So that we may be ever remembered,” they replied.

(Remembered! If I could only be forgotten!)

Then I sought out the lovers, silently forgetting Time.

“Why do you love thus?” I asked.

—The Sorrow of One, Cursed with Immortality on earth

으로써 海外文學派는 그들의 외국어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또한 「海外文學」 창간호에는 외국문학에 대한 가벼운 글로 에피소우드라든가 번역에 뒤따르는 생각 등도 피력한 게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해외문학의 수용에 대한 외국문학연구회의 통찰을 곁들인 경우가 있다.⁷⁾ 이것은 그 후에 전개된 海外文學派의 문단활동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일이다.

한편 그 내용으로 보아서 「海外文學」 창간호의 정신적 기초를 이룬 것은 대충 세 가지였다. 얼핏 보아도 나타나는 바와같이 「海外文學」 창간호에는 산문문학에 대한 경원현상이 나타난다. 즉 거기에는 상당량에 달하는 영·미·독·불 및 러시아의 시들이 번역·소개되었다. 그리고 평론들도 대개 시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다. 물론 거기에는 소설과 희곡의 번역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海外文學派가 다룬 번역소설이나 희곡의 작품과 작자 등이다. 이미 드러난 바와같이 이때 海外文學派가 번역 소개한 작품은 E.A.포우, 아나톨 프랑스, 에루생코, 릴라당 및 안톤 체홉, 마리네티 등 작가의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사실주의의 입장에서 작품을 쓴 작가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海外文學派가 산문의 원리에 충실한 작가의 것을 하나도 다루지 않았음을 뜻한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反散文的 정신성향이 드러나는 셈이다.

다음 「海外文學」 창간호에서 추출되는 또하나의 정신성향상 특징적 단면은 그 진보주의이다. 「海外文學」 창간호에는 그 권두에 金晉燮의 表現主義論이 실려 있다. 또한 거기에는 未來派 작가로 손꼽힌 마리네티의 희곡도 번역·소개되어졌다. 당시 우리 문단에는 아직 상징파시의 여운이라든가 프로문학의 현실폭로식 사실주의가 판을 치는 중이었다. 그리고 표현주의나 未來派는 서구에서도 10년대 말경에 자리를 잡은 것

7) 이에 대해서는 〈創刊·卷頭辭〉, 〈우리가 外國文學을 研究하는 것은 決코 外國文學研究 그것만이 目的이 아니요 첫째에 우리 文學의 建設, 둘째로 世界文學의 互相範圍를 넓히는데 있다〉라고 한 부분이 참고될 수 있다.

들이어서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었던 것이다.⁸⁾ 그들을 번역하거나 소개한 점으로 보아 海外文學派는 그 출발 당초에서부터 새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짙은 경우였다.

그런데 海外文學派의 이와같은 상아탑의 고고성과 진보주의적 단면은 당시 우리 문단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우선 海外文學派의 예술를 향한 경사와 대를 이루는 것에는 신경향파에서 시작된 프로문학측의 문학관이 있었다. 그러나 프로문학은 현실폭로의 논리적 발판을 이데올로기에서 구한 나머지 예술을 심하게 평가절하시켜 버렸다. 특히 제 2차 방향전환 이후 프로문학은 전혀 예술적 결구를 무시한 채 이데올로기의 선전문구가 되는 쪽으로 전락했다. 그리하여 그 언어는 거칠고 조잡한 것들이 되어 버렸다. 海外文學派가 보여준 작품의 질에 대한 배려는 이와같은 당시 우리 문단의 반예술적 기류에 썰기를 박는 구실을 했다. 그리하여 일부 문학사가 시인하고 있는 바와같이 그들의 활동은 그 다음을 이은 우리 문학의 예술파적 기질 형성에 중요한 동력원 구실을 했다.⁹⁾

한편 海外文學派의 진보주의적 단면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가능하다. 다만 그들의 예술파적 기질이 프로문학에 대한 제도장치인데 그 의의가 있었다면, 진보주의적 성향은 國民文學派가 떨어지기 쉬운 보수성의 지양·극복시도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였다. 잠깐 참고로 밝히면 海外文學派와 비슷하게 國民文學派 역시 프로文學의 이데올로기 지상주의에 반발하고 나선 유파였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그들은 프로文學의 계급지상주의에 대해 민족을 들고 나선 집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國民文學派는 어느 편이었는가 하면 민족의 해석을 복고적인

8) 구체적으로 표현주의는 1905년에서 1920년에 걸쳐 전개되었고, 未來派宣言이 일어난 것은 1909년의 일이었다.

9) 이에 대한 것으로는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第一部)(現代文學社, 1956), p. 306. <이러한 「海外文學」誌를 中心한 海外文學紹介運動은 「詩文學」 및 「文藝月刊」을 거쳐 「詩苑」등으로 발전됨에 따라 漸次로 朴龍喆, 金永郎등을 중심으로한 純粹文學運動으로 접근되어져 갔다.>한 것 참조.

쪽으로 물고 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국 민족의 근본 원리를 찾기 위해 단군조선을 문제삼았는가 하면 시조부흥을 피하고 과거의 위인, 열사들로 제재를 삼은 작품·제작을 주장했던 것이다.¹⁰⁾ 그런데 새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문학·예술은 끝없이 새 지평을 타개하지 않고는 그 존재 의의가 확보되지 않는 양식이다. 그리고 이때 문제되는 새 지평 타개는 복고보다 개혁의 시도로 가능해진다. 물론 國民文學派도 프로문학의 예술 侍女化에 맞선 유파였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海外文學派의 동반자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海外文學派에 의한 國民文學派 비판은 그것이 적대적인 게 아니라 애정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 國民文學派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을 요청한 일은 海外文學派의 호의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이때 海外文學派의 진보주의를 대변하면서 國民文學派에 비판을 가한 보기에 鄭寅燮이 있다. 그는 1931년도 3월달 「朝鮮日報」에 발표한 한글을 통해서 國民文學派에 개제하는 문제점을 다섯개 항목에 걸쳐 비판했다.

- (A) 一般이 알 수 없는 全然 死語가 된 韓國 古語를 避할 일
- (B) 漢詩 直譯式의 滿乾坤 等屬의 文句를 避할 일
- (C) 너무 먼 過去時代의 感覺에 醉하기보다는 現在의 生活 感情을 考慮할 일
- (D) 너무 無味陳腐한 內容을 避하고 着想을 深刻하게 할 일
- (E) 不得已한 境遇에는 數字의 規定을 넘어도 容認할 일¹¹⁾

여기서 A·C·D 등은 國民文學派의 감상적 복고주의를 극복시키고자 한 말들로 생각된다. 그리고 B는 언어의 참신성을 요망한 경우라 하겠다. 또한 E는 시조의 형식에 대한 기계적 해석을 지양·극복할 과제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상 다섯 개 항을 통해서 鄭寅燮은 國民文學派가 내포한 문제점을 대충 지적한 셈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海

10)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줄고, 國民文學派의 評價, 「韓國近代文學의 史的理解」(三英社, 1970). 참조.

11) 鄭寅燮, 韓國現文壇에 呼訴함, 「韓國文壇論考」(新興出版社, 1959), pp. 83-84.

外文學派의 진보주의적 감각은 상당한 수준을 확보한 경우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3. 「海外文學」 2집 및 海外文學派의 日本文學紹介

창간호에 이어 「海外文學」 2집은 1927년 7월달에 발간되었다. 그러나 2집과 창간호 사이에는 반년 이상의 시간상 경과가 있었던 것이다. 처음 그 구성원들이 보인 의욕을 감안하면 「海外文學」은 月刊으로 간행될 기세였다. 그것이 이렇게 지각 상태가 된 데는 물론 그 사이에 얼마간의 사정이 있었다. 동인들의 회상기에 의하면 창간호 「海外文學」의 출자자는 李殷松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그는 곧 이 잡지 발간에서 손을 떼는 것 같다. 아마도 상당한 투자가 계속될 전망이 서지 않은 나머지 빚어진 일종의 保身策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李殷松의 후퇴는 곧 「海外文學」이 발간된 경제적 기반의 상실을 뜻했다. 그리하여 2집은 부득이 외국문학연구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그 발간비를 각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발간될 수밖에 없었다.¹²⁾ 그런데 당시 외국문학연구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아직 학부의 재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자연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잡지 발간의 기금을 만들어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이 작용한 나머지 「海外文學」 2집이 지각으로 출간된 셈이다.

이미 창간호에서부터 「海外文學」은 日本文學을 무대접했다. 그리고 그 사정은 2집에 이르러서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日本文學을 전혀 다루지 않은 창간호와 달라서 2집에 약간의 지면이 그를 위해 할애된 것은 사실이다. 그 구체적인 보기가 되는 것이 威逸敎의 평론 〈明治文學의 史的考察〉과 異河潤이 번역한 西條八十의 〈回想〉이다. 그러나 이상 두 편의 글은 그 내용이나 분량으로 보아 크게 주목할 만한 게 못되

12) 異河潤, 文壇과 敎壇에서, 「異河潤選集」 p. 163.

었다. 참고로 「海外文學」 2집의 중요 내용 목차를 제시해 보겠다.

〈평론〉

李瑄根—黎明期 露西亞文壇回顧

威逸敦—明治文學의 史的 考察

鄭寅燮—쇼오劇의 作品과 思想

〈시 번역〉

丁奎稔역—갈대 부는 이, 그늘진 수풀(피오나 맥코리오드)

異河潤역—鎮魂曲(스티븐슨), 死都(알벨 싸맹), 부서라(A. 테넛슨), 잊어 버리어요(사라 디스테일), 두꺼비(폴비에르), 騎上(윌터 드라베어), 二元論(포올제 알더), 삼(J. 골스워드디), 回想(西條八十)

金翰容역—西風에게 보내는 노래(P. B. 세리)

李炳虎역—二老兵에게 寄하는 挽歌, 난데 없는 이에게, 憧憬하고 默想할 그때(W. 휘트멘)

〈소설 번역〉

孫宇聲역—알르의 女子(알퐁스 도오데)

〈희곡 번역〉

金翹역—白鳥의 노래(체홉)

張起梯역—그가 그내 男便 속인 이야기 (버어너드 쇼)

여기 나오는 威逸敦의 글은 그 제목으로 보아 상당한 내용이 담긴듯 착각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면 우리는 적지 않은 실망을 느낀다. 우선 이 글은 머릿말에 이어 본론으로 〈胎生期概觀〉이란 제목이 나타난다. 제목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明治文學의 發生期에 관한 논고가 시작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威逸敦은 〈國語國字論〉을 전개해 놓았다. 그리고 그것도 200자 원고지로 7,8매 정도를 소비하는 데서 끝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일본의 명치문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끝난 꼴이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이 계속 이어져서 발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이 당시 우리 주변의 日本文學 수용 상황에 어떤 변동도 가한 바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異河潤의 西條八十 번역은 그 분량부터가 문제다. 정작 〈回想〉은 그 전문이 5편으로 되어 있고 그 각행 또한 짤막한 것들이다.¹³⁾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작품은 西條八十의 대표작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西條八十 번역은 그 후 異河潤이 上梓한 해외시 번역사화집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海外文學派의 日本文學에 대한 푸대접 현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겠다.

海外文學派가 보여 준 이와같은 정신의 단면에 대해서는 대충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原典 제일주의 같은 것이다. 海外文學派는 외국문학 전공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때 외국문학 전공의 심리 저변에는 그들이 전공하는 문학이 근대문학 중에서 참다운 의미의 문학이라는 자부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日本文學은 고작해야 영·미·독·불 및 러시아 문학의 모방·아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이상 海外文學派가 日本文學을 부차적으로 돌린 것은 당연한 사태의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다음 거기에는 민족적 감정

13) 참고로 역시 전문을 옮겨본다.

南쪽 佛蘭西
 山속 적은 마을에
 나는 있었다.
 그날 해여름
 나는 석달을
 우리 故國 사람의
 그림은 말소래를
 듣지 못했다.
 너무도/孤寂해지머는
 다못 혼자서
 숲울과 말하며
 내 목소래가/울려오는 反響을
 그나마 들음으로
 깃버 했노라
 佛蘭西 西南便
 山속 적은 마을
 의로웠었던
 그날, 그해너름

내지, 민족의식이 작용했을 公算도 배제되지 않는다. 외국문학을 전공하면서도 海外文學派는 그들의 지향이 우리 민족의 건설에 있다고 표방했다. <무릇 新文學의 創設은 外國文學 輸入으로 그 記錄을 비롯한다. 우리가 外國文學을 研究하는 것은 決코 外國文學 研究 그것만이 目的이 아니요 첫째에 우리 文學의 建設, 둘째로 世界文學의 互相範圍를 넓히는 데 있다>. ¹⁴⁾ 여기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海外文學派는 그들의 행동을 民族에 결부시킴으로써 그 의의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日本文學은 우리의 主權을 강탈한 당사자들의 문학이었다. 따라서 海外文學派로서는 비록 순수한 문학분야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감감상 그것이 용서될 수 없다고 믿은 것 같다. 그런 나머지 그들의 외국문학 수입, 소개에서 日本文學이 극도로 축소되어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신적 표방이 그대로 海外文學派의 외국문학 수용과 日本文學 사이의 상관관계 부정설로 직결될 것은 아니다. 되풀이되지만 海外文學派는 그 구성원 전원이 일본에서 수학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이 말은 이미 海外文學派가 일본문학 내지 문단과 무관할 수 없음을 추측케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사실은 다른 자리에서 海外文學派 스스로가 시인한 일이기도 하다. 가령 李軒求是 그의 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崔南善 李光洙氏들의 「青春」을 爲始하여 「創造」, 「廢墟」, 「白潮」 등 잡지를 창간하여 文學運動을 활발하게 하든 그들의 原動力과 文學的 素養과 또 이의 實踐과 敎訓은 그 거의 東京 即 日本에서부터 胚胎된 것이었다. 그들은 모도다 朝鮮的 文學 建設을 위하여 文學青年的 野心과 熱情으로써 玄海灘을 건너 갔고 다시 새로운 抱負와 理想을 가지고 漢陽城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東京은 여전히 朝鮮文學의 第二產母요 溫床이었다. ¹⁵⁾

이것은 海外文學과 日本文學에 빚진 바가 전혀 없지 않음을 말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여기 쓰인 <第二產田 내지 溫床說>에 대해서

14) 「海外文學」(1)(1927. 1), p. 1.

15) 李軒求, 海外文學創刊前後, 「朝鮮日報」(1933. 9. 29).

는 약간의 주석이 필요하다. 상당히 양보해도 海外文學派가 일본문학 내지 문단에 대해서 반감을 품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그들의 반감이 日本文學에 대한 정신적 傾倒를 경계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겠다. 다만 그 이전의 文人들이 모두가 그랬듯 海外文學派의 일본문학파 문단에 대한 태도는 우리 문학 건설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자는 데 있었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 역시 그런 각도에서 이루어져야겠다.

4. 海外文學派의 外國文學受容(1)

—비평 해설을 통한 수용의 경우

海外文學派의 외국문학 수용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평론·이론적인 수입·소개의 경우라면 그 다른 하나는 직접 작품을 번역한 경우다. 시·소설등의 작품 번역·소개에서도 海外文學派는 물론 새 次元의 구축을 노렸다. 그들은 그들 이전의 <似而非 翻譯¹⁶⁾을 지양·극복하고 그에 대치해서 참된 의미의 외국문학 수입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소개·수입 시도의 경우 海外文學派의 면모는 더욱 두드러지는 바가 있다. 우선 그들 이전 우리 문단에서는 한 조직체의 모습을 띤 외국문학연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입장에서 외국문학의 흐름을 정리·평가할 계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海外文學派는 이와같은 우리 문단의 서부에 개척의 곡괭이를 꽂은 경우였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 궤적을 효과적으로 추적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배려가 가해져야한다.

한편 「海外文學」에 게재된 외국문학의 이론적 소개 시도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두 편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金晉燮의 <表現主義文學論>과

16) 卷頭言, 「海外文學」(2)(1927.7), p.1. 단 이 권두언은 鄭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발행인이 된 鄭寅燮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鄭寅燮의 <소오 劇의 作品과 思想> 등이다. 앞에 보인 목차 제목으로 나타난 바와같이 이밖에도 「海外文學」에는 이 유형에 속하는 글들로 鄭寅燮의 포오論과 金石香, 李瑄根, 咸逸教 등의 글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咸逸教 글이 수준미달의 것이었음은 이미 그 사정이 밝혀진 대로다. 金石香과 李瑄根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가능하다. 우선 金石香의 글은 몇 개의 소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제 참고로 그들을 적어 보면 <로맨티시즘의 特色>, <빅토리아朝 文學의 特色>, <락셀스 애버쿨롬비>, <海洋詩人, 존 메이스필드>, <桂冠詩人, 로버트 브릿지스>, <老年詩人, 토마스 하아디>, <戰爭詩人>들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글을 쓴 당시 金石香의 現代 英詩壇에 대한 인식은 <二十世紀의 文學은 十九世紀末 思潮의 混亂한 地獄에서 胚胎>¹⁷⁾ 되어 나왔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것은 現代英詩를 近代英詩의 후속 현상으로 파악한데 그친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20년대 후반기의 英詩는 이미 이미지즘의 세례를 거친 후였고, 그 무렵에는 또한 英詩壇에 엘리오프의 주지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다. 金石香의 글은 이런 사실에 맹목인 채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논외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鄭寅燮의 포오論은 순수한 의미에서 海外作家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이 글에서 그는 포오의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 제목에서 짐작되는 바와같이 그 절반 이상의 지면을 해외문학 연구의 의의를 밝히는데 소비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에게 한 보기가 되는 이런 경우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아직 그 <彼와 彼女> 兩語도 決定치 못했으나 그만큼 不足한 우리는 外國文學을 輸入하는 同時에 우리말을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必然의 努力을 要求하는 것이니 今般의 가가날의 誕生은 時代相의 必然的 要求에 依한 것이라 하겠다. 얼마나 반가운 일이나.¹⁸⁾

17) 金石香, 最近英詩壇의 趨勢, 「海外文學」(1), p. 32.

18) 鄭寅燮, 포오를 論하야, 「海外文學」(1), p. 26.

이것은 대법하게 보아도 다른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포우의 약력을 삽입한 경우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논의물 위해서는 참고 정도로 다루어도 무방한 경우라고 하겠다.

또한 李瑣根의 두 글에 대해서는 그 단편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무쉬킨의 生涯와 그의 藝術〉은 서론에 이어 무쉬킨의 생애 일부가 소개되는데 그친다. 이 글은 그 꼬리에 〈未完〉의 표가 붙어 있다. 그리고 정작 무쉬킨論에서 요구되는 문학론에 대해서는 〈次號로 민다〉고 附箋을 달았다.¹⁹⁾ 그러나 「海外文學」 2집에서 그 속편은 쓰여지지 않았다. 또한 〈黎明期 露西亞文壇回顧〉에 대해서도 이와 거의 같은 이야기가 성립된다. 이 글에서 李瑣根은 제재에 관계되는 몇몇 러시아의 작가들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간단한 약력을 소개했을 뿐이다. 이것은 당시 우리가 이용 가능한 문예사전에도 나오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 역시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이야기는 金晉燮의 表現主義文學과 鄭寅燮의 쇼오劇論에서는 크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金晉燮은 외국문학연구회 발족 당시 그 구성원 중에서 유일한 학부 재학생이었다.²⁰⁾ 그는 또한 그 年輩에 상응한 전공 연구의 실적도 가졌던 모양이다. 「海外文學」 2호에는 그에 대한 논평으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쓰여져 있다. 〈金晉燮氏는 슈닛츨러 劇의 論評으로서 獨文學者의 感讚을 받았으며 特히 表現主義文學에 對한 氏의 思考는 朝鮮의 權威인가 한다〉.²⁰⁾ 그의 表現主義文學論은 이런 논평의 말에 상응할 정도의 수준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글을 여기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다음 鄭寅燮의 쇼오劇은 200자 원고지로 썬쳐서 40枚 안팎으로 추정되는 글이다. 따라서 그 분량으로 보아 소품에 해당되는 글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鄭寅燮은 잠담 제하는 태도로 쇼오劇의 내용만을 문제 삼

19) 「海外文學」(1), p. 44.

20) 執筆諸氏의 最近消息, 「海外文學」(2), p. 66.

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쇼오劇에 대해 요를 얻은 평가의 말도 곁들여진 부분이 있다. 다음은 <오우렌 夫人의 職業>에 대한 그의 말 일부이다.

이 作品에는 特別히 悲劇的 要素가 많다. 普通 劇作家의 悲劇 作品에는 死와 運命 같은 것이 重大한 結末이지만 쇼오는 殺人이라든가 또는 死 같은 것을 要치 않는 까닭으로 <母女의 悲痛한 生離別>에서 그 悲劇的 效果를 맛보려 한다. 普通 것은 <喜悲>劇의이되 이것은 <悲喜>劇이라 할까.²¹⁾

이와같은 鄭寅燮의 쇼오劇 이해는 물론 독창적인 게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海外文學派의 그 후 활동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海外文學派는 그 후기에 이르러 演劇 활동을 전개했다. 그것이 1931년에 발족을 본 劇藝術研究會다. 그리고 그 4회 공연 때는 쇼오의 <무기와 인간>을 상연한 바 있었던 것이다.²²⁾ 이때의 쇼오劇 상연은 물론 외국문학연구회가 그 발족 당시부터 지닌 演劇 열의 일단이 피려진 경우였다. 그리고 鄭寅燮의 쇼오劇에 대한 이론적 소개는 그 단적인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글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鄭寅燮의 쇼오論과 일본문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적실하게 그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다. 본래 일본측의 쇼오에 대한 관심은 1924년 경에 이미 상당한 저변확대가 있었던 것 같다. 이해에 바로 일본 근대극 운동의 온상 구실을 한 築地小劇場이 개관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쇼오의 번역극이 바로 이 소극장에서 상연된 바 있었다는 것이다.²³⁾ 또한 鄭寅燮이 속한 早大의 英文科에서도 쇼오에 대한 소개가

21) 鄭寅燮, 쇼오劇의 作品과 思想, 「海外文學」(2), p. 23.

22) 이때 공연은 1933년 6월 培材高普 신축강당에서 행해졌다. 또한 그것은 8주년의 창립 2주년과 B. 쇼오의 東洋巡遊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李杜鉉, 「韓國新劇史研究」(서울大出版部, 1966), pp. 177-178.

23) 구체적으로 築地小劇場은 1926년 3월 5일에서 14일까지 행해진 44회 공연 때 B. 쇼오의 <성·존>을 北村喜八郎으로 상연했다. 秋庭太郎, 「日本新劇史」(理想社, 1958), p. 578.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鄭寅燮의 쇼오론은 바로 이와같은 당시 일본의 분위기에 힘입었을 公算을 가진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체내의 동기같은 것도 고려에 넣어야겠다. 새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쇼오는 그 출생지가 아일랜드였다. 그리고 그것은 日帝의 기반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 처지에서 볼 때 충분히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조건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언급은 이미 1920년도에 이루어졌다. 즉 이 해 7월달 「曙光」 6호에 盧子泳이 잠깐 그의 이름을 들먹였던 것이다.²⁴⁾ 또한 鄭寅燮의 쇼오論이 작성된 것과 같은 해에는 서울에서도 그의 劇이 上演되었다. 그 해 12월달에 梨花女專學生들이 延鶴年의 지도 아래 〈聖 잔·다아크〉를 공연한 것이 그것이다.²⁵⁾ 따라서 「海外文學」 2집의 쇼오劇論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그러나 그 배경 일부로 鄭寅燮이 수학한 당시의 日本文學과 문단의 분위기가 작용한 점도 계정될 수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鄭寅燮과 일본문학의 상관관계는 간접적인 것이다.

한편 日本文學과의 상관관계가 다소 명백하게 포착될성 보이는 게 金晉燮의 表現主義文學論의 경우다. 새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표현주의는 자연주의와 인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야기되었다. 이 운동은 예술이 현실과 자연의 재현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대신 그들은 작품을 격렬한 혼의 표현이며 개성과 열정의 제시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표현파들은 그들의 작품에 강한 색채를 쓰고 심한 變形을 감행한다. 또한 문학 작품에서 그것은 심하게 解辭的인 文章을 수반시키고 나타났다. 그런데 表現主義의 충격이 가해지기 전 일본 문단은 어느 편인가 하면 사실주의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詩分野에서는 낭만파적 기질이 한 줄기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의 작품은 일종의 관습 존중경향 속에서 제작되어졌다. 그러나 예술운동에는 언제나

24) 金秉喆,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乙酉文化社, 1980), p. 192.

25) 李杜鉉, 전계서, p. 163.

스스로를 파토스적 소용돌이에 던지고 싶은 충동이 뒤따르게 마련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표현주의의 일본 상륙이 이루어진 게 1920년대 중반기 경이다. 구체적으로 1924년 경에 築地小劇場에서 표현파의 연극이 잇달아 상연되었다. 또한 1923년에 茅野蕭蕭에 의해 표현파의 선구인 <웃토 린데의 시론과 시>가 소개되었는가 하면, 다음 해에는 橫光利一가 쓴 <表現派의 왕대>(「新潮」), 北村喜人の <表現主義의 戯曲>(新詩壇社)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1926년에 이르러는 小池堅治 「表現主義文學의 研究」(古今書院), 笹澤英明 <表現主義와 獨逸新興詩> 등 상당한 수준의 논문이 발표되기까지 했다.²⁶⁾ 金晉燮의 表現主義 소개와 이들의 상관관계는 해외문학파가 남긴 기록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된다. 가령 「海外文學」 2집을 보면 그의 동정을 적은 부분에 <山岸文學博士가 日本에 있어서의 功勞者라면 氏는 表現主義文學 紹介의 朝鮮의인 先驅인가 한다.>²⁷⁾고 한 부분이 있다. 여기서 山岸란 당시 일본의 소장 독문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아 그의 표현주의 수입, 소개는 바로 金晉燮의 앞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당연히 그의 선례가 참고되었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海外文學派의 外國文學受容(2)

—작품의 번역·소개

海外文學派는 외국문학의 수용을 위해서 작품의 번역·소개도 열정적으로 시도했다. 물론 그들의 외국문학 수용은 그와 함께 이론적 소개가 병행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편인가 하면 작품의 번역·소개가 그에 앞선다고 그들은 보았다. 가령 鄭寅燮은 「海外文學」 창간호에서 이미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외국작품의 번역·소개를 1 단계에

26) 千葉宜一, 大正 昭和期에 있어서 詩論의 發展과 流派의 展開, 「現代文學의 比較文學的 研究」(八木書店, 1978), pp. 71-72.

27) 「海外文學」(2), p. 66.

속하는 외국문학의 수용이라고 보고 그 필요를 레이몬 밴투우크의 말로 대치했다. <日本에 와서 보니 文學研究의 方針이 뒤바뀐 것 같아 보인다. 요전에 어떤 日本 英文學者의 집에 갔더니 藏書中에 作品은 稀少하고 換言하면 文學의 冊은 없고 <文學에 대한 冊> 뿐이었다.>²⁸⁾ 레이몬 밴투우크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이 가해진 대로다. 그는 또한 「海外文學」 창간호에 「海外文學」이 한국의 르네상스를 만드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든 뜻의 축사를 쓴 바도 있다.²⁹⁾ 따라서 그의 문학작품 우선주의론을 鄭寅燮이 인용한 것은 간과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海外文學派의 작품 수용 최우선 경향을 간접적으로 표상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 海外文學派는 외국문학의 번역·소개가 원전에 최대한 충실한 입장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역시 鄭寅燮은 상계한 글에서 보오드렐의 예를 들어 원전을 떠난 번역의 不可論을 제창했다. 그는 보오드렐이 포오를 번역하면서 오역을 범한 사실을 전제로 적었다. 그리고 그 오역이 결과적으로는 포오의 작품이 갖는 妙味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오드렐의 오역이 당연히 지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³⁰⁾

28) 鄭寅燮, 포오를 論하야, 「海外文學」(1), (1927.1), p. 29.

29) My Dear Mr. Chung,

I am delighted to hear that you and some of your friends are intending to edit and publish next January a new magazine entitled. "Foreign Literature." The study of foreign literature is, in my opinion, the most necessary and important inspiert of the writers of any country. It brings in a flood of new and fresh ideas, encourages new writers and prevents the old ones from becoming stale, and without it a true literary life is impossible. We in England owe practically everything to foreign literature. All our greatest men stole ideas and themes from the continent, not only at the time of Renaissance, but before and afterwords.

So let us hope that this new magazine of yours will be the herald of the Twentieth Century Renaissance of the literary life of Korea.

Wishing you every success,

Yours truly

Raymond Bantook

30) 鄭寅燮, 포오를 論하야, 「海外文學」(1), p. 28.

海外文學派는 또한 오역과 저질의 번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공한 것, 자신이 있는 것만 번역할 것과, 유령 번역이 감시·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그리고 그 구체적 방책으로 <거짓譯과 유령역 退治에 對한 積極的 暴露>, <譯이 決코 創作보다는 容易하지 않다>는 것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음은 이 두 항목에 대해서 鄭寅燮이 가한 설명이다.

아직도 原作者와 民衆과 自己를 속이는 不正譯者를 徹底히 排擊할 일. 在來로는 消極的으로 傍觀 혹은 묵인하였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그 <不可>를 없애기에 더욱 積極的 努力을 요할 것이다. (중략) 유령역·不正譯·二重三重譯(原語 없이 無責任하게 假裝해 놓은 것)을 지적해야 한다. 되지도 못한 덜된 作品보다는 참다운 譯의 眞價를 깨닫게 할 일. 現在 韓國作家가운데는 自體의 認識不足은 선반에 올려 놓고 自己가 創作을 하노라고 어떠한 自慢스러운 優越感으로 自己의 시시한 作品行動에 比하여 譯의 價値를 輕蔑하려는 可憐한 소위 <서문짜리> 文士가 얼마나 많은가?³²⁾

이것은 海外文學派가 그들 이전에 성행한 저질의 사이비 번역을 지양·극복코저 한 시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그들 스스로가 대학에서 외국문학을 전공한 최초의 집합체라는 공지가 깔려 있기도 했다. 한편 海外文學派는 바람직한 번역·소개의 전제로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인식의 필요를 역설한 바도 있다. 그들은 1927년 「가가날」이 제정되자 그것을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그들은 번역의 실제에 당하여 우리말의 어휘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새 말을 만들어 낸다든가 사투리 死語등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내는 방안도 고려에 넣었다.³³⁾ 그들이 「海外文學」 창간호에서부터 여성 3인칭으로 <그네>를 쓴 것은 그 구체적 보기가 되는 일이다.

한마디로 海外文學派에 의한 외국문학수용은 상당한 의욕과 함께 시도

31) 鄭寅燮, 韓國現文壇에 呼訴함, 「朝鮮日報」(1931. 1. 3~17), 「韓國文壇論考」(新興出版社, 1959), pp. 95-96.

32) 상계서, pp. 97-98.

33) 鄭寅燮, 翻譯藝術의 有機的 機能, 「韓國文壇論考」, p. 55.

된 셈이다. 그들은 또한 그 의욕에 상응하는 이론적 토대도 다져간 듯 보인다. 이제 그 구체적 결과로 생각되는 번역작품들이 검토되어야 할 차례다. 海外文學派의 외국문학 작품 번역·소개는 일단 두 호가 간행된 「海外文學」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그 이외에도 이 유형에 속하는 시도를 그들은 다른 신문잡지를 발표매체로 해서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주변에는 외국문학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발표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매체에서 외국문학작품이 게재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심쓰기와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우리 주변에서 외국문학 소개가 서자 취급을 당했음을 뜻한다. 말을 바꾸면 海外文學派의 외국문학 수용은 「海外文學」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었다.

한편 「海外文學」 두 호를 검토해보면 우리는 곧 거기서 詩樣式 우선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海外文學」에는 시 이외에도 소설이 번역되었고 희곡 작품도 취급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수량에 있어서 시에 비할 바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海外文學派에게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反散文·詩를 향한 정신적 경사현상이 검출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海外文學派의 외국문학 번역·소개가 詩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海外文學派의 외국시 수용에는 두 가지 문학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 하나가 원전을 선택한 지적 수준의 향상이라면 그 다른 하나는 수용 대상 지역의 저변이 확대된 점이다. 「海外文學」에 번역·소개된 외국시인의 작품은 이미 그 제목이 제시된 바와 같다. 그 일부를 다시 적어 보면, 베르렌느, 푸쉬킨, 로버트 브리짓스, 알프리트 뢰트세, 후고 호프만스탈, 마아텔링크 등의 작품이다. 이들은 모두가 서구의 근대시인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시인이 소속한 민족의 문학사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는 점에도 그 사정은 동일하다. 물론 海外文學派 이전에도 이들 작품은 한국문단에 번역·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은 그와 함께

일부 군소시인들의 작품과 함께 우리말로 옮겨졌던 것이다. 海外文學派는 이와같은 해외시 수용의 無定見性에 종지부를 찍은 경우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이 이 분야에 끼친 선구적인 공적을 인정해야겠다.

다음 후자에 속하는 단면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가능하다. 여기서 海外文學派에 의한 저번확대란 구체적으로 독일과 러시아의 근대시인들 작품이 번역·소개된 사실을 가리킨다. 새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海外文學派 이전에도 이들 나라의 근대시인들이 남긴 작품은 우리말로 옮겨진 선례가 있다.³⁴⁾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二重譯의 결과였다. 솔직히 海外文學派가 나타나기 이전 우리 주변에는 독일어나 러시아어를 원문으로 읽고 그것을 우리말로 옮길 만한 능력의 소유자가 없었다. 海外文學派는 이런 분야에서도 개척자의 위치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학사상의 의의를 인정해야겠다.

한편 해외시의 번역·소개는 경우에도 海外文學派와 일본문학과의 상관관계는 뚜렷이 포착되는 게 없다. 참고로 「海外文學」 창간호가 나온 年度에 이르기까지 日本側에서 발간된 중요 번역시집들의 이름과 발간년도들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上田敏譯, 「海潮音」(1905).
- 秋元芦風譯, 「빌러詩集」(1906).
- 兒玉花外譯, 「바이런詩集」(1907).
- 草野柴二譯, 「투루게네프散文詩」(1910).
- 永井荷風譯, 「珊瑚集」(1913).
- 森鷗外譯, 「沙羅의 木」(1915).
- 川路柳虹譯, 「베르렌느詩抄」(1915).

34) 1924년 11월 博文書館발행 金基鎭역의 「愛戀思慕」에 독일시 14편이 번역되었고 이어 姜晟周역, 「하이네詩選集」(平和書店, 1926), 金時弘역, 「하이네詩集」(永昌書館, 1926) 등 독일번역시집이 나와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詩는 이에 앞서 「泰西文藝新報」에 이미 金儼이 투루게네프를 소개한 것이 있다. 이후 러시아 詩의 수용에 대해서는 줄져 「韓國近代詩史」(새문사, 1983), 제 8장 海外詩 受容의 本論化와 그 樣相, 참조. 그러나 이상 번역·소개자 중에서 독일, 노어 등으로 이루어진 원시 해독능력 보유자는 없었다.

- 堀口大學譯, 「昨日의 花」(1918).
 生田春月譯, 「하이네詩集」(1919).
 白鳥省吾譯, 「뤼트먼詩集」(1919).
 馬場陸夫譯, 「보오드렐 惡의 꽃」(1919).
 上田敏譯, 「牧羊神」(1920).
 堀口大學譯, 「잃어진 寶石」(1920).
 柳澤健譯, 「現代佛蘭西詩集」(1921).
 有島武郎譯, 「뤼트먼詩集」(1921).
 日夏耿之介譯, 「와일드詩集」(1923).
 生田春月譯, 「버언즈詩集」(1923).
 鈴木信太郎譯, 「近代佛蘭西象徵詩抄」(1924).
 金子光晴譯, 「벨하아랭詩集」(1925).
 高村光太郎譯, 「벨하아랭 天上의 불꽃」(1925).
 前田春聲譯, 「프랑스 詩集」(1925).
 堀口大學譯, 「月下의 一群」(1925).

이상 일본의 역시집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세가지다. 첫째 번역의 대상이 된 작품은 아주恣意的으로 선택된 듯 보인다. 海外文學派式인 원전의 권위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森鷗外の 역시집에 대한 논평도 있다. 즉 그의 역시집에서 森鷗外는 데멜의 작품을 선두에 놓는 다음, 그에 이어 당시 거의 독일 문단에서는 이름이 없는 젊은 大學生의 작품을 옮겨 놓았다. 이것은 상당히 反權威主義的 대상 작품선택이라 하겠다.³⁵⁾ 다음 또하나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서정소곡 選好傾向이다. 1920년대 중반기 경까지 日本에서 출간된 번역 시집은 대체로 서구쪽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할 이상이 서정적이며 길지 않은 작품을 번역해 놓았다. 또하나 간과될 수 없는 것이 독일 근대시의 경원 현상이다. 그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시의 비중으로 보아 러시아는 독일에 멀리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20년대 중반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근대 번역시집은 몇권이 上梓되었다. 그에 대해서 독일 것으로 고작 〈沙羅의 木〉정도가 나왔을 뿐이다.

35) 「日本の 詩歌」(28), 譯詩集(中央公論社, 1982), p. 96.

상대적인 의미에서 독일시 경원경향이라는 이야기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海外文學」을 통해 보는 한 海外文學派는 이와 반대되는 단면을 드러낸다.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은 독일 근대시 번역·소개에도 상당한 배려를 가했다. 또한 번역·대상 작품의 선정에도 日本側과는 대척되는 입장이 취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海外文學派가 되풀이 脫日本文學을 외친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따라서 그들은 대상 작품의 선정이나 작품 번역의 실제에 있어서 애써 日本側의 것을 멀리했을 공산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번역·작품의 실제에 있어서도 海外文學派와 日本文學 사이의 상관관계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海外文學派가 보여 준 외국 근대시의 중개 행위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金晉燮, 孫宇聲, 異河潤 등의 경우다. 우선 金晉燮의 譯詩는 당시 우리 문단에서 최초로 전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독일작품 번역이었다. 또한 그는 당시 일본에서도 흔하지 않은 독일 근대시의 번역·소개를 보여 주었다. 다만 그는 작품선택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 무렵에 이미 독일시는 하이네의 시기를 지나 카뮈사 릴케의 작품으로 주류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을 그는 전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孫宇聲은 뫼세라든가 알벨 싸맹의 비교적 긴 작품들을 번역해내었다. 참고로 밝히면 그의 불어실력은 당시 일본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은 모양이다. 그는 재학때 프랑스대사관이 주는 불문학전공자의 상을 탔다. 그리고 불어강습소 중에서 이름이 있는 아테네 프랑스에서도 교편을 잡은 경력의 소유자였다.³⁶⁾ 뿐만 아니라 그는 후에 당시 한국의 외국문학도들이 총동원 되다시피해서 엮어낸 「海外抒情詩集」에서도 프랑스편을 담당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프랑스 근대시 번역은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海外文學派의 해외근대시 번역·소개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경우는 異河潤이었다. 그는 「海外文學」 1집과 2집에 계속 英·佛 양국의 시를 번역·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후 海外文學派로서는 유일하게

36) 執筆諸氏の 最近消息, 「海外文學」(2).

해의번역시집을 上梓한 바 있다. 그것이 1933년 詩文學社에서 발간된 「失喬의 花園」이다. 그는 또한 제나름의 번역시에 대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번역시의 문장을 가능한 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살아나도록 구사했다. 따라서 海外文學派의 외국시 번역은 그에 의해 대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역도 또한 참이다. 즉 그의 번역시를 검토해 보면 海外文學派의 외국시 번역이 지닌 수준과 특징 등이 추정될 수 있다.

「海外文學」1집에서 異河潤은 얼마간의 雅語體에 속하는 어미를 사용했다. 또한 그는 우리말의 울림에 대해서도 배려를 가진 듯 하다. 그리하여 원시에 나타나지 않는 어휘의 반복을 쓴 곳도 나타난다. 다음은 베르렌느의 작품 번역이다.

거리 우에 비가 내리는 것같이
 내 가슴 속에는 눈물이 퍼붓네
 가슴 깊히 잠겨 있는 이 내 설움은
 이 내 설움은 무엇일가나

땅 우에도 지붕 위에도
 오 고운 빛소래여!
 고달픈 마음일래
 오 퍼붓는 비의 노래여!

시달린 이 마음 속에
 까닭없이 눈물 흐른다
 그는 逆情도 아닌때
 이 哀傷은 까닭이 없고나

이는 理由 모르는
 가장 쓰린 苦痛이 어니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이
 이리도 괴로운가 이내 가슴은³⁷⁾

37) 「海外文學」(1), pp. 111-112. 단 띄어쓰기와 철자는 필자가 다소 수정을 가함. 이하도 같음.

여기 나타나는 바와같이 異河潤은 역시의 첫편에서 원시에는 없는 〈이내 설움〉을 되풀이 사용했다. 또한 〈무엇인가〉 정도의 뜻을 가지는 그 어미를 〈무엇일까나〉로 옮겨 놓았다. 그의 이와같은 번역으로서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海外文學派의 생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³⁸⁾ 단 각 번역작품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성공 여부가 의문이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역시집을 낼 때는 이 부분이 다음과같이 수정되어졌다.

거리 우에 비가 내리는 것같이
 내가슴 속에는 눈물이 퍼붓네
 가슴 깊이 수머드는
 이내 설움은 무엇일까나³⁹⁾

異河潤으로 대표되는 海外文學派의 번역시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이미 그 성공여부에 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단적인 보기가 되는 것이 梁柱東의 경우다. 梁柱東은 「海外文學」 1집이 나오자 곧 거기 게재된 異河潤의 번역에서 오역을 지적해서 문제삼았다.⁴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비평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내포된 셈이다.

한편 異河潤 영시 번역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립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金秉喆교수가 언급을 가한 게 있다. 金교수가 문제삼은 것은 異河潤의 테닛슨 번역이다. 그것은 「海外文學」 2호에 게재된 것인데 역시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부서라 부서라 부서라
 네찬 灰色 돌 우에 오 바다여
 그러나 내가삼에 이는 온갓 生覺을
 내혀로서 말하고 짐이여

38) 이런 경우의 단적인 보기가 되는 것으로 梁柱東의 공격에 답한 異河潤의 다음과 같은 글을 들 수 있다. 〈……그것이 오직 無味한 語學先生의 번역이 아닌 이상 그 번역하는 데도 반드시 일일이 엄밀한 逐字的만이 아닐 것을 경우에 따라 인정치 않을 수 없다.〉 異河潤選集(2), (한샘사, 1982), p. 52.

39) 「失香의 花園」(詩文學社, 1933), pp. 105-106.

40) 梁柱東, 文藝批評家의 態度, 其他, 「東亞日報」(1927. 3. 4).

오, 부림어라 漁夫의 아달은
 누동생 부르며 뛰놀고 있다
 오 부림어라 젊은 水夫는
 바다 기슭 보오트에서 노래 부른다

그리고 큰 배들은
 山影밀 그들의 港口를 向한다.
 그러나 오 사라진 님의 손이어
 고요해진 님의 말소래여

부서라 부서라 부서라
 례 바위 밑에 오 바다여
 그러나 지난 날의 부드러운 情은
 永遠히 내에게 오지 않노라.⁴¹⁾

이 작품은 아아더 헬럼에 대한 추모의 정을 그 바닥에 깔고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아아더 헬럼은 테닛슨의 친구이자 그의 누이동생의 약혼자였다. 그런데 그는 테닛슨과 구주대륙을 함께 여행중 22세의 푸른 나이로 요절했다. 따라서 이 시는 죽은 친구에 대한 추모의 정이 주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異河潤의 번역에는 그런 원시의 이미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金秉喆교수의 지적이다.⁴²⁾ 또한 위의 번역에는 그 문맥 처리에서도 서투른 곳이 나타난다. 참고로 테닛슨의 원시 첫째 연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Break, break, break
 On the cold grey stones, O sea!
 And I would that my tongue could utter
 The thoughts that arise in me.

얼핏 보아도 나타나는 바와같이 異河潤의 번역은 문법의 초보적인 원리에 어긋나 있다. 우리말에서 〈부서라〉는 타동사에 속한다. 따라서 그

41) 부서라!, 「海外文學」(2), p. 31.

42)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p. 500.

것은 반드시 목적어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역시에는 그 전편에 우리가 목적어라고 잠을 수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번역이 가진 난점에 대해서는 異河潤 자신도 후에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진 듯 하다. 그리하여 「失喬의 花園」에서는 그것이 〈부디치라, 부디치라, 부디치〉로 개역이 된 바 있는 것이다.⁴³⁾ 결국 우리는 海外文學派인 번역에서 장점과 함께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장점이라면 그것은 그 이전의 恣意的 翻案詩와 逐字譯의 딱딱한 번역을 지양·극복한데 있다. 그리고 그 한계라면 때로 오역을 내고 있는 일에 관계된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은 이 분야에서 새로운 地平을 타개해낸 流派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海外文學派의 해외시 번역에 대해 응분의 평가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6. 結末 添言

이상 우리는 네 개의 장에 걸쳐서 海外文學을 중심으로 한 우리문학과 일본문학과의 상관관계를 추적해 보았다. 이제 우리가 얻어낸 결론들을 적어 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1) 海外文學派는 그 전원이 일본유학의 체험을 가진다. 그럼에도 그들의 해외문학 번역·소개에서 일본측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검출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일본문학 자체를 서구문학과 대등하게 취급하지도 않았다. 海外文學派의 외국문학수용에는 서구 근대문학 최우선의 단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2) 海外文學派와 일본문학의 상관관계는 이론적인 소개의 경우와 작품의 번역·소개 등 두가지 경우로 분류·추적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海外文學派에 끼친 일본문학의 영향은 明示的으로 나타나는데 없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성립된다. 海外文學派는 원

43) 「失喬의 花園」 p. 23.

전의 선택과 그 문장·해석 문맥의 처리등에서 가능한 한 일본측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하여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비가 가능한 예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 역시 海外文學派의 脫日本文學的인 정신 지향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3) 海外文學派는 시종 일관해서 문학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좋은 작품을 번역·소개하고 그 수용을 통해서 우리 文學의 새 地平 타개가 이루어지기를 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문학 태도는 당시의 우리 문단에서 反文學 反藝術의 기류를 조성한 프로文學의 정치지상주의에 제동장치 구실을 했다. 그들이 카프의 거듭된 비난·공격을 받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⁴⁴⁾ 한편 海外文學派가 지닌 自國文學에 대한 관심과 예술성 추구 경향은 그 후 그들이 우리 문학사에 끼친 선구적 공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海外文學派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힘이 묵시적으로 작용하여 詩文學派의 형성을 가능케 했다. 또한 그 영향력은 九人會에도 미쳤다. 詩文學派는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文藝月刊」, 「文學」등의 잡지들도 간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詩苑」에 까지 미치는 유파다.⁴⁵⁾ 그리고 그것은 九人會와 아울러 30年代 한국문단의 새 국면 타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海外文學派는 이들 유파의 형성 전개에 기폭제 구실을 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활동 궤적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이 글에는 한계도 있다. 海外文學派와 일본문학과의 상관관계가 효과적으로 추적되기 위해서는 좀더 착실한 외적 증거의 포착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때 문제되는 외적 증거란 양국 문단에 등장·활약한 중개자들이 남긴 담화와 기록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당사자들

44) 이에 대해서는 金允植,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 제 1부 제 5장 海外文學派 제 2절 프로文學과 海外文學派의 論爭에 자세한 언급이 되어 있다.

45) 이에 대해서는 趙濟鉉교수가 말한 바 있다. <이러한 「海外文學」誌를 中心한 海外文學 紹介運動은 「詩文學」 「文藝月刊」을 거쳐 「詩苑」등으로 發展됨에 따라 漸次로 朴龍喆, 金永郎 등을 中心으로 한 純粹文學運動과 接近되어 갔다.> 「韓國現代文學史」, p. 306.

의 면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일기와 비망록 등도 입수·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자 자신의 조사 범위는 그런데 까지 미치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각대학의 학적부를 복사해 내는 데 그쳤다. 그리고 한국측에서는 자료 수집에 더 많은 곤란이 따랐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미 타계했거나 노령이어서 책임있는 증언을 해 줄 계제가 아니었다. 또한 그들이 남긴 일기나 비망록도 거의 입수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글의 이야기는 대체로 추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글에서 조그만 보람을 느낀다. 그것은 우리 문학이 끊임없이 自我를 지키고자 한 그 발자취가 확인된 점이다.